

위드 코로나...전남지역 축제 기지가 쏜다

수목비엔날레·명량대첩축제 호응

비대면·온라인 전시문화 ‘새 모델’

지자체, 프로그램 전략 개발 분주

최근 개최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명량대첩 축제가 온라인 축제의 새 모델로 주목받으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대거 취소·연기됐던 전남지역 축제들도 기지를 쏜다. 지자체들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관람객 유치는 자제하되 비대면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 취지를 살리자는 전략을 세우며 행사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2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5일 열린 명량대첩 축제를 대면행사를 최소화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했다. 행사기간동안 유튜브 채널 ‘명량대첩축제티브이’에서 실시간 중계된 프로그램은 총 조회수 13만 2,000회를 기록하며 큰 이목을 끌었다. 관람객들은 명량대첩 수군의 후에 해군과 해경

이 연합한 해상 퍼레이드와 울돌목 상공에서 펼쳐진 공군 에어쇼를 비대면으로 즐겼다. 주최 측은 온라인 역사문화 축제를 치르면서 남도장터·해남미소·아리랑골 등 지역 소품목도 활발하게 운영해 수익도 올리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냈다. 지난 1일 61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도 29일 기준 관람객 19만 3,000명을 돌파해 비대면시대 온라인 전시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시관에는 같은 기간 동안 현장 관람을 하지 못한 관람객 15만 1,000명이 방문했다. 전체 관람객 중 온라인 관람객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78%에 달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축제들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지자체들의 행사 개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진군은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49회 강진청자축제를 온라인 축제로 선보인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를 취소한 것과 달리 올해는 유튜브 채널과 축제 홈페이지 등을

통한 생중계 등 비대면 방식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군은 축제 각종 행사를 군 유튜브 채널 ‘강진군 전 tube’을 통해 생중계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강진 스마트 퀴즈쇼, 강진 청자골 온라인 콘서트, 읍면 노래자랑, 강진 명품청자 경매, 특산물 세일 등이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펼쳐진다. 내달 열린 전남국제농업박람회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당초 계획보다 행사장 규모가 축소됐다. 당초 5개 존 14개 전시관을 3개 존 8개 행사장으로

축소하고 스마트 농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행사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남도음식문화큰잔치도 방역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키면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축제에는 시군 대표음식과 명인 요리비법, 화려한 색감의 남도음식 전시, 남도장터와 연계한 방송 판매 등 다양한 온라인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국내 대표 꽃 축제인 함평국향대전도 10~11월

중 함평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현재 군은 정확한 축제 일정과 온·오프라인 방식을 병행한 프로그램 확정 등을 논의하고 있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비대면·온라인 축제 개최가 서둘러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코로나19와 상생하는 온라인 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메타버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전남만의 대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29일 오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열린 ‘캐스퍼 차량전시관 오픈행사’에서 대학생, 시민들이 전시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김성훈 기자

“광주시청 시민홀에 캐스퍼가 떴다”

3대 전시...간단한 시승 등 지원

광주시는 29일부터 시청 1층 시민홀에 ‘캐스퍼’ 차량 전시관이 운영된다고 밝혔다. ‘캐스퍼’는 현대자동차의 위탁을 받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첫 적용된 광주글로벌모터스에서 생산한 경형 SUV 차량이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이날 오전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차호연 현대자동차 광주·전남지역본부장, 관내 대학생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차량 전시관 개관식을 갖고 ‘캐스퍼’ 실물을 시민들에게 최초

로 공개했다. 이번 ‘캐스퍼’ 차량 전시관은 ‘캐스퍼’의 판매가 온라인 D2C(Direct to Customer) 방식으로만 이뤄져 발생하는 차량 실물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차량 홍보를 통한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전시관은 광주시청 1층 시민홀(이룸카페 옆)에 마련됐으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주말 포함) 시민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전시 차량은 가솔린 1.0 모델 2대와 1.0터보 모델 1대 총 3대이며, 아틀라스 화이트, 인텐스 블루펄, 톰보이 카키 3가

지 색상이 전시됐다. 전시관 방문객을 위해 현대자동차 측에서는 차량 안내서와 운영인력을 배치해 차량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간단한 시승 등을 도와줄 예정이다. ‘캐스퍼’ 전용 전시관은 광주시청 이외에도 광주유스퀘어 등 관내 2개소를 비롯해 전국에서 총 30개소가 운영된다. 이용섭 시장은 “2년 8개월 전, 문재인 대통령 참석해 광주시와 노동계, 현대자동차가 광주형 일자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역사적인 장소에서 또 한번의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았다”면서 “캐스퍼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우리의 ‘희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남도, 내년 국비 확보 총력전

오늘 서울서 국회의원 간담회

전남도가 내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예산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 컨벤션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 등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과 함께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예산정책 간담회를 갖는다. 간담회에서는 도정 현안과 정책을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고 내년 국고 현안사업이 국회 심의를 통과하고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 정책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유치 역량 결집,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 해상풍력 인프라 구축 및 제도 개선, 지역자원 시설세 과세 확대 등 7건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고 지원은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국립심뇌혈관센터 설치, 김치 전문생산단지 조성, 신안 추포-비금 국도2호선 연결도로 건설, 전라선 고속철도, 국립해양수산물박물관 건립, 광주-완도 2단계 고속도로 건설 등 33건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을 추가 발굴해 10월까지 중앙부처와 기재부를 집중 방문해 설득해야 한다”며 “국고 확보가 하반기 도정 최우선 과제인 만큼 지역 현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8월 확정된 내년 예산안에는 전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미래 신성장산업 등 지역 현안과 블루 이코노미 핵심사업이 대거 반영돼 국비 7조,5131억원을 확보했다. /길용현 기자

창조와 혁신을 통해 100년 기업으로!!

다스코(주)는 홍익인간의 이념과 정신을 계승하여 **생명을 존중**하고 **고객이 감동**하며 **보람**을 공유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3년 매출 5,000억원 목표



가드레일 / 교량난간 / 터널 방음벽 / 방음벽



육상태양광 / 수상태양광



합판탈형 데크플레이트 / 스틸 데크플레이트
경질우레탄폼 단열재



구조용 선조립 / 용접철근(WBM)
BIM모델링

신기술 개발 선도업체 다스코가 4차산업을 주도하겠습니다.